

# 80年代 에너지危機와 対応戰略

이 자료는 지난 6월 26일 趙東成교수가 韓國能率協會주최로 全經聯회관에서 개최한 공개경영강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이다. (編輯者註)

趙 東 成  
(서울大 經營大學 教授)

## 에너지供給源의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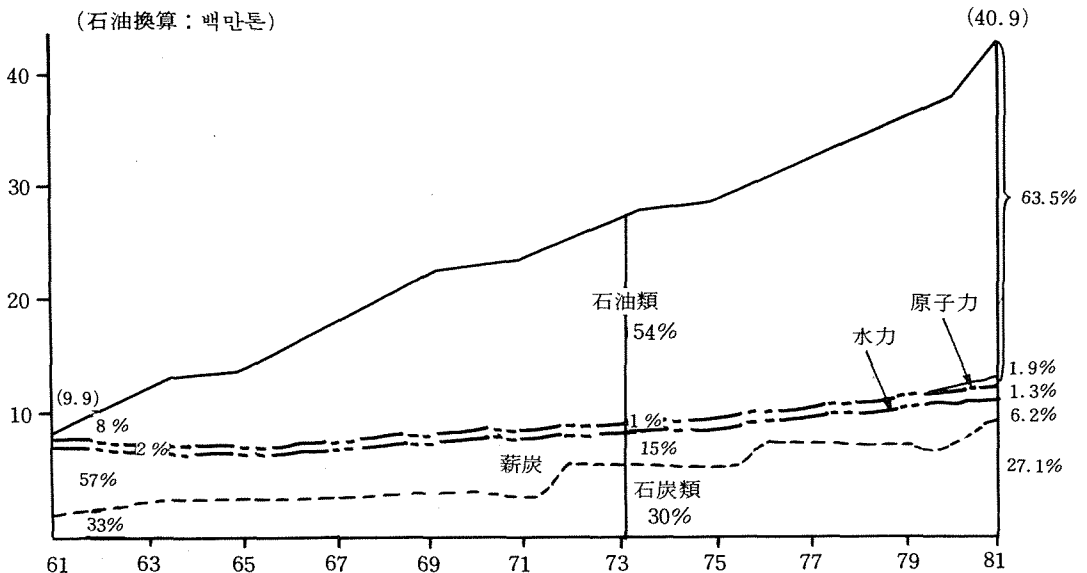
지난 20년동안 우리 나라의 에너지 사용실태를 보면, 石油換算으로 61년의 9 백90만톤에서 81년에는 4 천90만톤(추정)으로 약 4 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이런 과정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 것은 石油이다. 61년에 石油가 전체 에너지供給量중에서 차지한 비율이 8%에 불과했으나 73년 第1次 石油危機 당시에는 54%

로 늘어 났고, 81년에는 63.5%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하면, 석유는 절대적인 物量 이외에도 상대적인 비중이 第1次 石油危機가 발생했던 73년의 54%에서 현재 63.5%로 거의 10%나 상대적인 증가를 보였다.

이에 비해 石油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체 에너지供給量에서 차지하는 石炭의 비중은 61년의 33%에서 81년에는 27.1%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薪炭은 57

## 에너지 供給源의 變遷

(石油換算 : 백만톤)



%에서 6.2%로 줄어 들었고, 水力발전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77년부터 원자력이 새로운 에너지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石油危機 이후 정부의 脫石油정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石油의존도는 계속 높아져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80년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需給構造를 보면 石油가 전체의 62.1%로 가장 많다. 이를 다시 國産에너지와 輸入에너지로 大別해 보면, 輸入에너지는 石油외에 무연탄, 유연탄, 가스, 原子力등을 포함하면 총에너지의 69.4%에 이르고 있다. 이는 에너지수급구조에 있어서 해외 의존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 石油依存度와 産業構造의 特性

정부는 제 5차 5개년계획기간중 石油의존도를 48%선까지 14%정도 낮추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석유의 비중을 81년의 62.1%에서 86년에는 48.4%로 낮추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물량에 있어서는 81년의 2천 5백만톤에서 86년에는 2천 8백70만톤으로 약 15%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것은 경제발전에 따

라 석유수요가 불가피하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賦存資源이 빈약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연탄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나 이것도 炭幅이 협소하고 불규칙한데다가 급경사와 深淵化로 採炭与件이 악화되고 있다. 현재 무연탄생산량은 연간 1천 8백만톤정도인데 앞으로 이 생산량은 계속 줄어들지언정 늘어날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주 낙관적인 전망은 1천 9백만톤정도로 약 1백만톤 늘이는 정도이지만, 이것은 지금이 낙관적인 견해이다.

代替에너지開發에도 한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代替에너지로 이용가능한 것은 包藏 水力, 潮力, 太陽에너지등이 있다. 특히 太陽에너지는 日本같은 나라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資本이 부족하고 이 분야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日本보다 상당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海外依存도가 심해질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海外의존도는 76년의 61.6%에서 80년에는 69.4%로 늘어났고 一般鎡의 해외의존도는 76년의 50.4%에서 80년에는 82.8%로 크게 늘어났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重

에너지需給計劃

(單位：石油換算 1,000톤)

區 分	80	81		82	83	84	85	86		82-86年平均增加率 (%)
	(実績)		%						%	
石油	23,566	25,396	62.1	26,916	28,464	28,027	27,676	28,667	48.4	2.5
가스	458	569	1.4	622	700	788	1,833	2,904	4.9	38.5
無煙炭	9,878	10,198	24.9	10,618	11,235	11,468	11,740	12,116	20.5	3.5
有煙炭	199 (3,319)	880 (4,939)	2.2	1,467 (5,764)	2,245 (6,779)	4,474 (9,503)	6,106 (11,135)	6,154 (11,183)	10.4	47.5
水力	496	537	1.3	535	537	536	690	726	1.2	6.2
原子力	869	774	1.9	913	1,484	3,153	4,561	6,561	11.1	53.3
薪炭	2,517	2,517	6.2	2,343	2,260	2,180	2,110	2,070	3.5	△ 3.8
太陽熱	-	-	-	--	-	1	3	5	-	-
總 에너지	37,983 (41,103)	40,871 (44,930)		43,414 (47,711)	46,925 (51,459)	50,645 (55,674)	54,719 (59,748)	59,203 (64,232)		
〈伸張率(%)〉		〈7.6〉		〈6.2〉	〈8.1〉	〈7.9〉	〈8.0〉	〈8.2〉		〈7.7〉

註：( )는 製鐵用 有煙炭 포함.

□ 資 料 □

化学工業에 대한 투자확대에 따라 에너지소비는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에너지多消費型으로 되어 있다. 日本의 경우 GNP에 대한 에너지彈性値는 70~73년에 0.97에서 75~79년에는 0.30으로 낮아졌다. 다시 말해서 GNP 1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1 단위는 0.3에 불과하다. 日本은 두차례의 에너지危機를 거치는 동안 과거의 鉄鋼, 석유화학등의 에너지多消費産業에서 電子, 機械, 自動車

등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GNP에 대한 에너지彈性値는 70~73년에 1.04, 75~79년에는 0.96이었으며 79년에는 1.88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GNP대비 에너지彈性値는 1~1.1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너지危機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존도가 深化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GNP 对比 에너지彈性値 比較

区 分	70-73	74	75-79	79
美 国	0.85	2.07	0.42	-0.13
西 独	1.0	-8.5	0.79	1.27
日 本	0.79	0.83	0.30	0.80
프 랑 스	11.11	-0.34	0.34	0.59
韓 国	1.04	0.11	0.96	1.88

資料: British Petroleum Statistical Review(1980), IFS(1979, 1980), OECD, World Economic Outlook(1980, 7)

石油依存度 推移

区 分	单 位	62	71	79	62-70	倍 数 79 / 62
總 에너지 消費	石油換算 百 萬 톤	10.5	21.3	40.5	8.7	3.9
石油 消費	百 萬 톤	1	10.8	24.7	22.4	25.1
石油 依存度	%	9.4	51.1	61.0		

原油輸入부담과 基本姿勢

石油依存度の 深化는 필연적으로 外貨부담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原油代金 부담 증가 추이

区 分	70	80
石油輸入代錢 (C & F 기준)	1 億\$	60 億\$
G N P 의	1.3%	10.5%
輸 出 額 의	11.1%	35.0%
輸 入 額 의	5.6%	27.5%

70년의 우리나라 原油輸入代錢은 1억달러 (C&F 기준) 정도였으나 80년에는 60억달러로 늘어났다. 불과 10년동안에 석유수입부담은 60 배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GNP对比 輸入代錢은 70년의 1.3%에서 80년에는 10.5%로 늘었고, 총수입액에 비해서는 5.6%에서 27.5%로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原油代金은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危機에 대한 대응전략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흔히 대응전략이라고 하면, 에너지消費절약이나 原油導入先의 다변화등을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런 에너지危機를 맞이하여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戰略을 수행하기에 앞서 우리들의 자세에 變化가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자세에 대한 기본전제로서 우리는 우선 80년대는 不確實性의 時代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겠다. 70년대만 하더라도, 73년 1차 石油危機 이후 어느 정도 景氣가 회복된 다음의 얘기이지만, 앞으로 에너지위기가 또다시 발생할 것인지의 興否가 불확실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公式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지만, 政策当局者들은 에너지危機는 어느 정도 끝났고, 앞으로는 재도약할 단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經濟發展은 75~78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71~78년 사이의 高度成長時代에 우리나라의 성장속도는 他의 추종을 불허했고 결과적으로 78년에 이르러 우리나라는 수출물량과 1人당 GNP등에서 속적인 台灣을 앞질렀다. 따라서 앞으로 不確實性은 없을 것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有限的인 자원을 경제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성장위주로 물고 나가자는 戰略이 75~78년에 멋지게 성공한 것이다.

만약 79년에 제 2차 石油危機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도약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79년에 제 2차 석유위기를 맞게 되면서부터 다시 台灣에 뒤지기 시작했다. 결국 우리나라는 78년에 한번 台灣을 앞질렀을 뿐 그 이후엔 다시 뒤지고 있다.

## 만성적 危機와 市場經濟

미래에 대한 不確實性속에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었던 70년대와 달리 80년대에는 에너지危機가 만성적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최근에 이르러 石油소비절약이 상당히 진전되고 代替에너지개발도 예상보다 빨리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危機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우리는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政府나 企業은 이러한 에너지危機가 앞으로도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大前提下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흔히 듣는 얘기이지만, 官主導型의 計劃經濟에서 民間主導型 市場經濟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產油國의 專斷的인 가격결정에 대응해야 하는 韓國의 입장에서는 과당경쟁 및 독과점에 의한 소비자 不利益을 수반하는 시장경쟁의 폐해보다 利益추구동기를 가지지 않은 행정에 의한 非效率性의 폐해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 문제는 정부가 도맡아 책임을 지고 고민하고 해결해 왔으나 이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에서 더 능동적으로 에너지문제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전제하에서 결국 政府와 企業, 일반국민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자.

우선 정부는 諸資源의 수급균형을 위한 장기정책을 수립해야겠다. 물론 動資部에서는 앞서 말한 에너지 수급계획을 내놓고 있으나, 장기계획이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게 아니라 정부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바뀌는 자세에서 어떤 方向으로 나갈 것인가를 설정하는 자체가 장기계획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民間企業을 좀 더 육성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메이저와 같은 會社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회사로 하여금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자율적으로 石油問題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는 장기계획이나, 民間베이스를 좀 더 확장하고 人力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이는 등의 다각적이고 차원높은 장기전략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計量經濟的 방법이 아닌 實質的인 이해와 접근방법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에너지문제는 숫자로만 나타낼게 아니라 에너지라는 物體를 피부로 느끼고 감각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石油가 1배럴 있다고 해서 이것이 35달러라는 式으로 等價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에너지는 숫자로 나타낼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숫자 그 자체는 절대로 아니다. 實物로서의 에너지를 피부로 이해하는 그런 감각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 企業과 國民의 協調중요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정부가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企業과 國民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問題는 全國家的인 문제이고 따라서 國民과 정부가, 國民과 기업이 二人三脚이 되어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따로따로 노는 듯한 인상도 없지 않았다. 또 企業의 입장으로서도 에너지문제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 미흡하고 뒤떨어진 것 같다. 예를 들어 企業에서 실제로 에너지專門家라고 자처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긴 眼目을 가지고 해외 에너지연구기관에 연수를 보낸다는가 국내에서라도 연구시스템을 만들어 전문가를 양성하는 단계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위기에 대한 企業의 대응전략은 尙油國사업이 People's Business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특히 石油產業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사업으로 얼렁뚱땅하는 성격이 강하다. 다시 말하면, 석유산업은 차근차근하게 계산하고 컴퓨터나 계산기를 두드려서 쫓아 나오는 그런 사업이 절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中東이나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막대한 뇌물을 뿌려야 되고 또 여러가지 術數를 동원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모른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현실을 현실 그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People's Business," 즉 사람이 하는 사업이고, 숫자놀음이 아닌 그런 사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석유산업의 체질을 이해하는 안목에서 사업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石油產業에는 엄청난 위험부담이 따른다. 뇌물을 쫓다가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고, 뇌물 자체가 하나의 큰 비용이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企業이 아니면, 사실 에너지產業에 뛰어 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内部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또 企業은 정부를 先導할 수 있는 능동적 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정부를 리드할 수 있

는 능력이 없는 기업에서는 에너지산업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특히 로비活動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능력을 아울러 갖춘 상태에서 에너지산업에 진출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產業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유산업, 原油도입사업, 油田개발사업등의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이 세가지 사업은 모두 엄청난 자본 및 위험부담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에너지產業은 이런 능력을 다 갖춘 상태에서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國民의 대응전략으로서는 우선 에너지政策의 집행에 대한 國民의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부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國民이나 언론에서 에너지산업을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라는 것은 사람몸으로 말하면, 피와 같은 것인데 國民도 정부나 기업이 무엇을 어떤 方向으로 추진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막연하게 大企業이 특정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정부가 지나치게 官主導型으로 밀고 나간다는 식으로 비판적인 자세만 가질 것이 아니라, 國民은 건전한 비판은 하되 필요한 협조는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 國民에게는 정부와 企業의 임무와 活動動機를 이해하는 자세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런 전제조건하에서 결국 韓國의 에너지政策이 나아가야 할 方向에 대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선 시간적으로 볼 때 戰略이라는 것은 사용될 수 있는 시기가 있다. 열가지 戰略이 다 좋다해도 이를 하루 아침에 다 시작할 수 없다. 모든 戰略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에 언제 사용하느냐하는 時間개념이 도입될 때 그 戰略은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된다.

에너지戰略은 短期戰略, 中期戰略, 長期戰略의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단기전략이란 우리가 사용하는 石油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中期戰略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石油에서 탈피하여 그밖의 化石에너지로 代替하는 전략이다. 장기전략은 1백~2백년후 化石에너지가 고갈된 후를 대비한 전략이다.

## 石油確保를 위한 短期戰略

石油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단기전략에는 3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는 国内油田의 개발이다. 7 鉱区에서 86년까지 모두 11개의 구멍을 파기로 계획되어 있고, 또 4 鉱区 최남단에서 유전탐사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이 정도로는 미흡하다. 예전대 7 鉱区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10구멍이 아니라 30구멍, 1백구멍까지라도 팔 수 있는 열성과 끈기, 집념이 필요하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는 3백구멍까지 뚫었다는 실례가 있다. 한 구멍 뚫는데 대개 3백만달러 내지 1천만달러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전세계적으로 대륙붕에서 商業性있는 油田이 발견될 확률은 2%에 불과하다. 즉 50번 뚫어서 한번 성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50번 뚫어서 한번 나오면 그 한번에서 나오는 이익이 50개 구멍을 뚫는데 소요된 투자액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개 뚫고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 5년동안 10개만 뚫는다는 것은 미흡하다. 1년에 5개, 10개씩 뚫을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메이저들은 통계학과 컴퓨터를 동원하여 엄밀한 분석을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는가를 따져서 굴착에 들어간다. 그러나 우리는 메이저와 같은 냉정한 분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메이저처럼 전세계의 어느 곳이나 가서 선택적으로 油田開發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油田대상지는 몇군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産油國과의 파이프 라인, 즉 유대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하는 것이다. 動資部에서는 원유 도입교섭에 있어서 1國1社主義를 채택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는 석유비축의 확대이다. 석유비축은 워낙 엄청난 비축이 필요하며, 1배럴 비축에 비축시설비용이 10달러나 소요되는데다가 석유자체의 비용이 배럴당 30~40달러나 소요되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석

유비축계획에 의하면 50~60日分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이 90~1백20日分 정도까지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석유비축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와 같이 石油자원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선진국과 공동운명체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에서 1백20日分 비축하면 우리나라도 1백20日分을 비축하여 거기에 대한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 선진국에서 1백20日分을 비축하고, 우리는 60日分밖에 비축하지 못했을 때, 만일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우리의 60日分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선진국은 우리나라를 구원하러 오지 않을 것이며, 또 우리나라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범세계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1백20日分을 비축하고 있다면, 우리가 1백20日分을 없애는 동안 先進國도 1백20日分을 모두 없애게 되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될 것이므로 전세계는 공동으로 에너지문제에 대처하는 戰略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때는 先進대열을 쫓아가는 전략만으로 충분하지만, 先進國이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먼저 다 소비하는 불상사만은 피해야 할 것이다. 石油비축은 선진국이 1백20日分을 하니까 우리는 60日分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미온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비용이 들더라도 선진국수준까지는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中·長期對策의 樹立

中期戰略은 석유고갈에 대비한 대책으로 3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에너지원의 다양화이다. 石油는 제일 먼저 고갈될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石炭이나 天然가스등으로 代替해 나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특히 石炭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生産에 한계가 있어 외국에서 수입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항만시설문제를 비롯하여 국내수송문제, 공해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에너지원의 다양화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국내 산업구조의 개편이다. 産業 발전과정을 볼 때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그리고 정보산업 내지 기술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定石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重化学工業 착수단계에서 에너지危機를 맞았기 때문에 과거 日本이 겪었던 것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重化学工業化의 기간을 가능한 한 단축시켜 집약적으로 발전시키고 에너지低消費型인 정보산업, 기술산업등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는 石油소비의 절약이다. 美国의 경우는 전체소비량 가운데 交通부문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美国의 석유소비절약은 자동차사용의 축소, 즉 자동차의 小型化, 자동차주행거리의 단축, 자동차사용의 감축등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交通부문에서 사용되는 석유는 10% 정도에 불과하다. 전체소비량중 60% 이상이 산업체에서 소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石油消費節約의 초점은 美国처럼 交通부문에 맞출 것이 아니라 산업체에 맞춰져야 한다.

長期에너지대책은 化石에너지고갈에 대비한 대책으로 代替에너지개발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현재 가능하리라고 예측되는 核융합에너지는 거의 무진장한 원료를 갖고 있고, 太陽에너

지는 무한한 원료를 갖고 있는 자원이다. 그러나 이들 에너지에 대한 연구개발은 우리와 같이 經濟규모가 크지 못한 나라에서는 과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것이 못되고 역시 先進國의 옷깃을 잡고 가는 "Follow the leader" 戰略을 채택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先進國에서 상업화될 때 그것을 빨리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용태세만은 갖춰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연구개발에 집중투자는 못하더라도 外國에서 개발한 기술을 빨리 답을 수 있는 그릇만은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73년 제 1차 석유위기후 한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79년에 제 2차 석유위기를 맞은 후 최근에 또다시 유예기간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러한 유예기간은 어디까지나 과도기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예기간이야말로 우리가 고삐를 풀 때가 아니라 오히려 바짝 더 조여서 未來의 石油危機에 대비하는 기반을 구축할 절호의 찬스이다. 정부나 企業, 매스컴에서는 에너지危機가 닥쳤을 때, 석유문제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石油危機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때 石油나 에너지問題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검토하고 연구해서 에너지戰略을 제시하고 수행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 IEA, 均衡잡힌 에너지經濟로의 신속한 전환을 促求 -

<p>先進 석유소비국들이 보다 均衡이 잡힌 에너지經濟로의 전환을 원만하고도 신속하게 이루지 못할 경우 서방소비국들은 80년대 어느때가는 지난 73/74년과 79/80년에 經驗했던 것과 같은 정도의 油價쇼크를 또다시 겪게 될것으로 IEA는 믿고 있다. 1일 발표된 21개 회원국들의 에너지 政策과 계획에 대한 年例 報告書에서 IEA는 계속되는 景氣沈滯과 인플레이션이 1990년대의 非石油에너지源의 개발 전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균형잡힌 에너지經濟로의 전환이 계속적으로 추</p>	<p>진되지 못하면 그것을 成就하기까지는 必要以上の 長期間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이 보고서는 또 永統적으로 석유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현재 進行되고 있으며 또 실질적으로 석유소비량이 현저히 減少되진 하였으나 景氣가 다시 호전될때까지 에너지 經濟의 永久的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大海와 같은 消費減少가 얼마나 계속될지 不分明하기 때문에 안심할 餘地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안심해도 좋다는 것을 立証할만한 80년대의 에너지需給狀況에 대한 객관적인 評價가 아무</p>	<p>것도 없기 때문에 慢心을 하는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p> <p>IEA는 이 보고서에서 會員國들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IEA의 純石油輸入量은 85년에 2,550만b/d로 增加되었다가 90년엔 다시 79년도의 수준인 2,450만b/d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렇게 될경우 需給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油價上昇의 압력과 低經濟成長의 위험이 따르게 될것임으로 各會員國들은 IEA의 純石油輸入량이 85년엔 2,200~2,300만 b/d, 90년엔 1,900~2,000만b/d水準으로 減少되도록 노력할것을 促求하였다.</p>
--	---	--